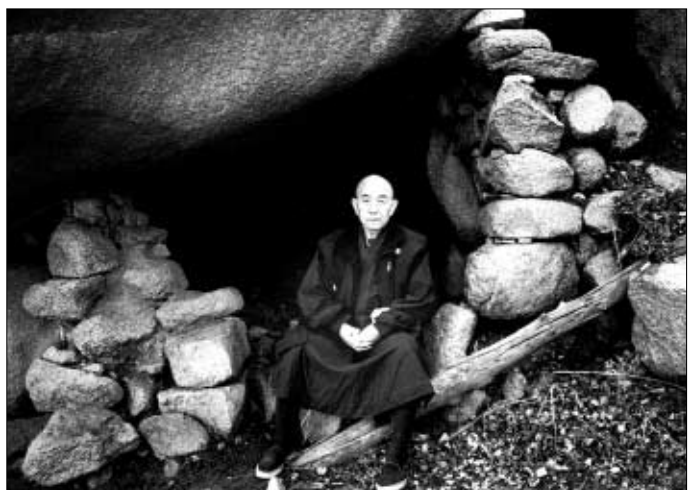


“가세! 새처럼! 내 산으로, 내 스승의 동굴로 가서 바위와 나무와 하늘에게 물을 걸세. 스승님은 어디에 계시나고...”

《동행》(원제 Bones of the Master)은 물질적 풍요와 소비 만능의 세태 속에서 잊혀진 참된 삶의 의미를 일깨우는 한 선사의 구도기다. ‘현대판 선어록’의 틀 미저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중국내 자취구인 내몽고 출신 스님이 스승의 유골을 찾는 고행을 미국 시인이 동행하며 기록한 색다른 형식을 띠고 있다. 더구나 종차이(宗才)라는 주인공 스님은 1950년대 말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정권의 탄압을 피해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온 사연 많은 스님이다.

‘동행’

조지 크레인 지음 / 정진영 옮김  
무우수 / 1만원



◇중국내 자취구인 내몽고의 푸나에 위치한 스승이 거주했던 동굴을 35년만에 방문한 종차이 스님.

# 스승님은 어디에 ... 한 몽고 선사의 구도기

혁명의 열정에 쌓여있던 중국이 저지른 과오 중 극단적 진화적으로 악명높은 문화대혁명(1966~76년)은 이보다 앞선 대약진 운동(1958~62년)에서 그 불길한 전조를 보였다. 중국 농촌을 근본부터 바꿔 증산을 피하겠다는 이 운동은 결국 최악의 기아사태를 초래하는 것으로 마감했다. 여기도 정치운동까지 겹쳐 공산정권은 몽골과 티베트의 스님들을 닦아내기로 살해했다.

1959년 10월, 출가한 지 13년째 접어들어, 세랍 34세의 종차이 스님이 자신의 사원이 있던 내몽고의 푸지를 탈출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죽음을 피하든 또 다른 죽음’을 선택하는 형식이었다. 시인에게 종차이 스님이 어렵게 털어놓는 탈출 과정은 말 그대로 눈물없이 읽기 힘들다. 대륙 곳곳에 초근목피조차 구할 수 없어 목숨을 잃은 송장이 너부러진 사이로 삼엄한 감시의 눈길을 피해 1년여간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인간

## 스승 유골 찾아 35년만에 중국 입국 송고·처절한 인생역정 그려

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종차이 스님은 기차가 커브를 돌 때 속도가 시속 8km로 늦춰진다는 걸 알고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산등짐에서 기차 지붕으로 떨어져 내린다. 그러나 어떤 이는 터널을 지날 때 머리가 으깨져 죽고, 커브를 돌 때 원심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철길로 떨어진다. 결국 혼자 남겨진 종차이 스님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강물로 뛰어든다. 이 책은 1987년 미국 워싱턴주 인근에 오두막을 짓고 은둔한 채 살아가는 종차이 선사를 매사에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었던 시인이 저자가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죽음을 이겨낸 종차이 스님

의 탈출 과정은 시인의 필력에 의해 열정과 유머로 재현된다. 피로 전철된 중국의 역사와 현재, 내몽고 오지의 풍광, 선사상과 시, 그리고 죽음에 대한 통찰까지.

종차이 스님은 97년, 떠나온 지 35년만에 내몽고를 다시 찾는다. 중국의 개방으로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된 것이다. 종차이 스님은 자신이 떠나올 때 노환으로 남겨졌던 스승이 죽은 뒤 사막에 아무렇게나 매장된 걸 알고 그 유골을 찾아 다비식을 치르는 계획을 세운다. 저자는 스승의 유골을 찾으러 가는 종차이 스님과 ‘동행’ 하면서 삶과 죽음을 떠나온 스님으로부터 어떻게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를 뚝뚝 배워가게 된다.

이 책은 처절하고 송고한 인생 역정을 거친 선승의 고백이라, 면벽수행(面壁修行)만 해온 스님들의 그것과는 다른 깊이와 맛을 느낄 수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해외에서 가르침 교사 구할.’ 히말라야 동쪽에서 자리 잡은 은둔의 나라 부탄에서 일할 영어교사를 구한다는 한 줄짜리 신문광고가 스페인에서 캐나다 여성을 뒤흔들었다. 박사과정 진학과 결혼을 앞둔 제이미 제퍼는 모든 걸 남겨두고 지구 반대편, 미지의 먼 나라로 떠났다. 그곳에서 3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자기 내면과 불교적 사유의 새로운 만남에 눈떴다. 제자와의 사랑을 통해 소박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도 발견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원제 Beyond the Sky and the Earth)은 그 소중한 체험에 대한 유쾌하고 진솔한 기록이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등지를 튼 부탄은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정도, 인구 100여만명의 작은 불교왕국. 국민소득으로 보자면 최빈국에 속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세상의 시간을 다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덕없이 특별한 곳’이다.

‘하늘이 눈물을 떨어뜨리더니 산의 얼굴을 닦았다’는 시적인 표현에, ‘이렇게 2년간 살면 몸매가 정말 좋아질 것 같다’는 저자의 유머감각도 책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무엇보다 느리게 흘러가는 삶을 세밀화처럼 그려낸 이 책은 허둥지둥 살아가는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한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제이미 제퍼 지음 / 도솔 옮김  
꿈꾸는 돌 / 1만1천원



◇은둔의 불교왕국 부탄.

## 덕없이 특별한 곳에서 찾는 삶의 의미

김재경 기자

## ‘쓸모없는 것의 가치’

샘 크레인 저 / 강정 옮김  
화니북스 / 9천원



## 장애인 아들 통해 ‘진정한 삶’ 터득

미 동북부의 작은 학교, 웨일엄스대학에서 동양학과 국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샘 크레인이 쓴 이 책은, 갑작스럽게 한 장애아 아버지가 된 저자가 ‘여기저기 못한 삶의 전환’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고뇌하면서 동양고전 읽기를 통해 스스로 변화해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의학적 판정과 경제학적인 이해타산을 떠나, 온전히 못한 아이의 삶을 긍정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스스로 변화해 가는 저자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다. 가족의 사랑과 학자적 이성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써 내려간 300여쪽의 내용은 독자들이 사랑의 위대함과 동양고전의 세계에 함께 젖어들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의 첫째 아들 에이단은 정상으로 태어났으나 열을 만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을 일으키며 보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게 된다. 그 병은 비정상적인 것들로 회한하게 조합된, 병명도 자료도 없는, 의학적인 판단 밖에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밖에 말해주지 못하는 의학적 판정과 현대과학에 대한 절망과 회의, 없느니만 못한 존재보다는 차라리 죽음이 더 낫다고 부추기는 피터 싱어의 결과주의와 공리주의는 그가 넘어야 할 또다른 도전이었고, 이런 고뇌가 그를 동양의 정신세계로 인도한다.

저자는 먼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때에 맞는 역할’ (時中)을 제시하는 <주역>에서 삶의 길을 구한다. 칼 융에 따르면 <주역>은 서양의 목적론적 인과율로는 포착할 수 없는 삶의 유연성을, 의미 있는 특수한 상호의존성과 공시성(共時性)에 의해 설명해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는 삶의 깊은 ‘심연’ (坎)으로 떨어진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물이 주위환경에 적응하듯, 마음을 갖고 자신의 생활을 에이단에 맞춰간다. 장애아를 둔 아버지로 빨리 변해간 그는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대신 학부모 자문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삶으로 변한다.

그런 그에게, 천하의 미는 추함이 있기 때문이고 높고 낮은 것이 서로 채워준다는 또다른 고전 <도덕경>의 지적은 비정상적인 사람, 약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신하게 한다. 죽어가는 아이의 부모가 되는 방법을 얻고자 찾은 <장자>에서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더 천착

하여 ‘쓸모없어 보이는 것의 쓰임(無用之用)’을 발견한다. ‘쓸모없음’에 대한 긍정은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깨달음의 과정을 거친다. 현실을 인정하는 ‘너른 시야’를 얻어, 소외된 이웃과 훼손된 자연환경, 장애아에 눈뜨게 한다. 배려와 협동, 관용의 미덕, 마음 나눔을 얻게 하고, 포용과 통합, 공존을 지향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상대적인 사고에서 전체적인 사고에 이르게 한다.

그에게 장애아인 에이단과 건강할 딸 마거릿은 겉보기에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한 가족이다. 두 자식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샘 가족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저자가 읽은 세 동양고전은 삼현학(三玄學)으로 대표되는 책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연주의 사상이 오히려 현대 문명에 더욱 빛을 발한다. 만물을 섬처럼 고집시키지 않는 ‘교제의 절학’이며, 온전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전히 못한 사람에게 삶의 여유를 주면서 동시에 책임에 대해

되 돌아보게 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자칭 현실

## 장자 등 동양고전 천착... ‘無用之用’ 발견

도피로 읽힐 수도 있는 영역별 동양고전을 저자는 지극한 가족애를 날줄로 엮어내며 주어진 현실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수를 놓고 있다. 동시에, 불안정한 것(A-)과 정상적인 것(A+)으로부터 비약적인 특수한 삶(A+)을 요구하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불완전한 삶(A-)과 또다른 불완전한 삶(A+)으로부터 시야를 넓혀 온전한 일상의 삶(A)을 추구하려는 발상의 전환, 상식적인 가치의 전도를 분별 있는 이성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 책은 전도(顛倒)된 현실을 바로보자는 지혜로운 안목이 저자의 눈을 통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다.

남들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는 나무를 심어 놓고 유유하 노닐겠다는 장자의 지혜나 “우리가 실용성만 중요시한다면 우리는 핵심을 놓칠 것이다”는 샘의 지적은, “뻘뻘이 대로 꼰다”던 경허 선사의 법어를 떠올리게 한다. 어원상 치료(healing)라는 말은 전체(whole)라는 말과 근원이 같고, 종교(religion)라는 단어의 어원 가운데 하나가 ‘다시 읽기(read again)’라는 점을 되새기며 이 책을 읽으면 더 좋겠다.

■박효상 / 출판연구소 연구원

《쓸모없는 것의 가치》의 저자 샘 크레인은 장애인 아들을 통해 과학의 한계에 부딪치면서 <주역>(도덕경)<장자>를 새로 읽었다. 그는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무위자연의 도를 강조하는 동양철학에서 삶의 지침을 발견했다.

<p>민족사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E-mail: minjoksa@chollian.net</p> <p style="text-align: right;">*별보시 주문을 받습니다.</p>				
<h2 style="color: white;">문수기도공덕</h2>	<h2 style="color: white;">관음기도공덕</h2>	<h2 style="color: white;">지장기도공덕</h2>		
<p><b>문수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지혜가 총명해지고 맑아진다.</b></p> <p>문수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가피를 입은 이야기(영험담)와 부록으로 문수보살경전이 실려 있습니다.</p> <p>평행본 면목/ 4×6판 양장/ 208쪽/ 값 6,500원</p>	<p><b>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b></p> <p>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이야기(영험담)와 부록으로 ‘관음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p> <p>윤상학 면목/ 4×6판 양장/ 209쪽/ 값 6,500원</p>	<p><b>지장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지옥고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왕생한다.</b></p> <p>지장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 주고 지옥고를 면한 이야기와 부록으로 ‘지장경’이 실려 있습니다.</p> <p>면목부 면목/ 4×6판 양장/ 224쪽/ 값 6,500원</p>		
<p><b>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불교신행상식 150가지</b></p> <h2 style="color: white;">왕초보, 불교박사되다</h2> <p>이 책은 주로 신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만 간략히 설명한 책이다. 예컨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교, 조상님은 무엇일까요?</li> <li>• 불교는 왜 불교가 불교인가?</li> <li>• 불교의 불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li> <li>• 개종(개종)은 어떤 것인가?</li> <li>• 불교의 내전은 정말 있었나?</li> </ul> <p><b>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b></p> <p>석지현·임지·윤정화 지음/ 4×6판 양장/ 320쪽/ 값 7,500원</p>	<p><b>경전속에 들어 있는 불교명언 300가지</b></p> <h2 style="color: white;">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h2> <p>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감지 말라,</p> <p><b>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b></p> <p>석영우·석지현 면목/ 4×6판 양장/ 180쪽/ 값 5,000원</p>	<p><b>죽은 이를 위하여 49재를 지내는 까닭</b></p> <h2 style="color: white;">영가천도와 49재</h2> <p>죽은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인가?</p> <p><b>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b></p> <p>파계사 불주 편집인 권순희·김수희·박민진 지음/ 4×6판 양장/ 295쪽/ 값 6,000원</p>	<p><b>간단명료하게 풀이한 100가지 문답</b></p> <h2 style="color: white;">간추린 불교상식 100문100답</h2> <p>불교교리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이 되는 문체, 100가지를 선정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일문서입니다.</p> <p>누구나 전자계산기 같은 이 책 한권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어떤 질문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p> <p>평송수·송수·송수·송수·송수·송수·송수·송수·송수·송수 지음/ 4×6판 양장/ 380문/ 380문/ 값 9,500원</p>	<p><b>부처님께서 남기신 주옥 같은 명구!</b></p> <h2 style="color: white;">마음을 열어주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h2> <p>법구는 불교의 근본입니다. 법구는 남다른 힘과 같은 것이다. 법구는 마음을 열어 주는 것이다. 법구는 바탕과 같고 마음과 같고 깊숙하고 같은 것이다.</p> <p>평송수 면목/ 4×6판 양장/ 170쪽/ 값 6,000원</p>